

PA-12

중북부 중산간지 논 이용 밭 작물 다모작 작부체계의 농가 순수익 영향박연호¹, 김하림¹, 정승민¹, 유재형¹, 임창식², 이혜민², 임정빈², 김도순^{1*}¹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²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**[서론]**

밭작물은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크게 부족하여 밭작물의 생산 확대와 쌀의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을 동시 목표로 논이 밭작물 재배 전환 즉 답전윤환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.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다모작이 가능한 상황에서, 본 실험은 중북부 중산간지의 논에 밭작물 작부체계로의 전환이 농가 단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

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위치한 시험포장에서 6종류의 논 이용 밭작물 다모작 작부체계평가를 실시하였다. 각 작물의 단위면적 당 수량과 작물 가격정보를 통해 총수입을 산정하고, 작부체계 별 인력, 경영비, 투입 자재 및 기타 비용 등을 산정하여 총비용을 산정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작부체계 별 연간 평균 순이익을 계산하였다. 이를 각 연도의 평창 지역 논 벼 및 콩 단작에 의한 농가 순수익과 비교하여 작부체계 수행에 따른 농가 순수익의 증감률을 비교 평가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다모작 작부체계의 10a당 연간 평균 총수입은 메밀-대두 작부유형이 최소 143만원, 감자-대두가 최대 876만원이었으며, 논 벼 단작의 117만원보다 모두 높았다. 평균 생산비는 호밀-들깨가 최소 133만원, 감자-브로콜리가 최대 337만원이었으며, 논 벼 단작의 77만원보다 모두 높았다. 평균 순익은 메밀-대두가 최소 -14만원, 감자-대두가 최대인 626만원이었으며, 논 벼 단작은 40만원이었다. 벼 단작에 비해 대부분의 밭 작물 다모작 작부유형의 순익은 2배 이상 높았지만, 메밀-대두의 경우는 메밀 수확지연에 의한 대두 파종 지연 및 수량감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, 높은 생산비가 소요된 호밀-브로콜리와 총수입이 낮았다. 따라서 중북부 중산간지에서는 감자, 대두,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논 이용 다모작 작부체계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(사업번호: PJ01388702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dosoonkim@snu.ac.kr Tel. +82-02-880-4542